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과 민간경비의 역할

Crime-Prevention in the Community and the Security Activity

장 예 진*

<목 차>

I. 서론	IV.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민간경비활동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각 국의 CPTED 적용현황	

<요 약>

우리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없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경호·경비 관련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범죄 방지를 위한 지역 경찰의 능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대응체계와 방법체계를 비롯기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하는 경향이 보여 정부의 치안력 한계를 느끼게 하는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의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의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사회 범죄활동에 대해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호활동의 참여를 통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책으로 CPTED기법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적용하여 유효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지능화되고 홍보화 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표를 삼고자 하는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주제어 : CPTED, 환경설계, 범죄예방, 민간경비, 지역사회

*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과 박사과정

I. 서론

우리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없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경호·경비 관련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미디어의 발달은 범죄자들의 범죄수법을 날이 갈수록 다양화, 흉포화, 세분화, 지능화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의 지능화는 범죄피해의 발생량뿐만 아니라 피해수준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를 낳고 말았다. 급증하는 범죄에 경찰의 인력과 장비가 그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을 따라주지 못했고, 이는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방어하는 고대의 모습으로 회귀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 다변한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전략과 범죄피해에 대한 치안역량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양문승 1995, 25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경호 활동분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신경비학 이론으로서 주변의 환경을 활용한 범죄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의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의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사회 범죄활동에 대해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호활동의 참여를 통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책으로 CPTED기법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적용하여 유효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 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표를 삼고자 하는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연구의 핵심은 한국경호경비활동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건축공간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하는 노력은 각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지역사회 및 민간경비활동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CPTED의 개념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개념은 “건축 및 환경의 제대로 된 설계와 올바른 관리는 범죄의 감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CPTED를 정립한 사람은 1970년대에 뉴욕주립대학교와 플로리다주립대학교수로 재직하였던 제퍼리(C. R. Jeffery)이며,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최초로 출간하였다(조병인 2001, 51). 비록 공동주택의 영역 내로 그 대상을 한정한 뉴먼(Newman, 1972)의 Defensible Space에 비해, CPTED가 보다 넓은 환경과 범죄와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토대를 이루는 기본 원칙들은 ‘경계의 설정(boundary definition)’, ‘접근통제(access control)’, ‘토지의 활용과 활동장소간의 관계(the relation between land used and activity locations)’ 및 ‘영역성(territoriality)’ 등 뉴먼(Newman, 1972)의 개념과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¹⁾(Schneider, R. and Kitchen, T 2002, 101). 1980년대에 이르러 CPTED이론과 실무상의 원칙들은 ‘깨어진 창문이론(Broken Windows Theory)’의 등장과 뒤이은 수많은 실증연구들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과 환경의 ‘관리(maintenance)’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뉴먼(Newman, 1972)은 그의 저서에서 소개된 안전한 환경의 창조에 개별이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범죄예방과 방어공간을 위한 물리적인 설계의 4가지 기본요소로서 영역성(Territoriality),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이미지(Image), 그리고 입지조건(Milieu)을 제시하여 개념구성을 하였는데 이 기본 사상과 과정들은 1972년 이후 범죄예방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크로우(Crowe)의 이론에 있어서 환경설계의 개념은 제퍼리(C. R. Jeffery)와 같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키는 조작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옥을 외판선이나 무인도에 만드는 것도 CPTED의 예로 볼 수 있다. 범죄예방 차원이 아닌 범죄자의 사회격리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섬에 위치한 감옥에 투옥되는 죄수는 거의 탈옥이 불가능하다. 배가 없는 한 탈옥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변의 바다로 인해 교도소는 그만큼 필요한 경비인력의 수를

1) 다만, 이 중 ‘영역성’에 대해 덜 강조한다는 점은 주목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영역성’ 개념이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이다.

줄일 수 있으며, 죄수들의 탈옥의지를 손쉽게 잠재울 수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모든 사람들이 현실생활에서 직접 자주 접하고 있는 개념이다.

2.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개념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개념은 지배적 특성으로 보아 범죄이전(Precrime)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범죄의 측면에서 볼 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김충남 1997, 253). 지역사회는 자연 지리적 요소의 '지역성'과 사회문화적 요소인 '공동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제퍼리(C. R. Jeffery)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죄에 대한 직접적 통제란 범죄의 환경상 기회를 줄이기 위한 것만을 포함한다. 간접적인 통제는 직업훈련, 보충교육, 경찰감시, 경찰체포, 법원조치, 구금, 보호관찰 및 가석방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범죄예방이란 또한 범죄위기관리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현장운용상 설명된다. 범죄위기관리는 비용 효과적이고,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범죄위험감소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다.²⁾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은 이웃공동감시, 재물표시, 주택안전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게 범죄예방책임을 부여하고,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찰과의 협력 속에서 친밀한 지역사회-경찰, 경호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단기적인 효과로는 첫째,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늘어가면서 주민의 책임의식과 주민에 의한 범죄통제가 증가한다. 주민들이 지역의 범죄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게 됨으로써 범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구체적인 특정전략들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이 확보되고 지역사회와 경찰 및 경호는 더욱 협력하게 된다(최인섭 1994, 107-108). 자연적·인위적 장벽의 이용, 군대 또는 자경단, 적에 의한 공격이나 범죄를 방어하기 위한 각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다양한 상호보호활동은 현대시대까지 모든 문화에서 발생하였다.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법집행의 성공은 이웃 주민들의 참여 및 협력에 매우 의존하고, 몇몇 범죄예방활동들은 주민들 자신에 의해서 더 잘 수행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늘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의 주민 참여가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활동은 선진 각국의 주요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자리 잡아 왔다(임창호 2004, 137-140).

2) 범죄위기를 관리하는 것에는 ① 몇몇 위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② 부상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감소시켜서 몇몇 위기를 감소시키는 것, ③ 범죄자의 공격을 부정하고, 제지하고, 지체하고, 지체시키고, 탐지하기 위한 물리적, 전자적, 절차적 경비조치들을 통하여 몇몇 위기들을 분산시키는 것, ④ 보험가입이나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몇몇 위기상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⑤ 몇몇 위기를 받아들이는 것 등이 포함된다.

III. 각 국의 CPTED 적용현황

1. 미국 CPTED 사례

1)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의 사례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에서의 CPTED프로그램은 법집행원조청(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LEAA)의 재정지원 하에서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회사에 의해 수행되어졌다. 이 회사의 소장 Edward Perce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의 CPTED 프로그램의 목적은 “범죄 및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하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법집행 및 관리기법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접근통제·감시·활동지원·동기억제를 통해서 달성되어지며, 이러한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목표는 첫째 영역방어, 둘째 개인방어, 셋째 법집행, 넷째 신뢰회복의 네 가지 전략을 통하여 수행되는데 이 네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방어는 침입강도(breaking and entering), 차량절도, 빈집털이범등과 같은 재산관련 범죄의 예방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섯 가지 전략³⁾이 있다.

둘째, 개인방어는 강도, 폭행, 강간 등과 같은 노상범죄의 예방과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두려움의 감소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안전한 거리의 구축, 안전한 수송수단, 현금 소지의 억제, 시민으로서의 의무감 등이 포함된다.

셋째, 법집행은 범죄예방에 기초한 대민봉사기능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경찰순찰활동과 민경협력이 있다.

넷째, 신뢰회복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CPTED의 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관심 및 지지를 동원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상업환경 및 주거환경을 위한 전략이며, 여기에는 지역 투자분위기의 조성 과 주민의식의 강화가 있다.

2) 메릴랜드 주 앤 아룬델(Arne Arundel County)군 경찰서의 사례

1995년 메릴랜드 주 앤 아룬델 군(Arne Arundel County) 경찰서는 미국의 모든 경찰서 중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한 최초의 경찰서가 되었다. 이러한 발상은 그 동안 몇 차례의 현금자동지급기 강도사건 이후에 이루어졌다. 현금자동지급기의 특성상 24시간 개방되어

3) 다섯 가지 전략으로는 ①토지이용계획 ②건물자체보호 ③건물주변보호 ④건물내부보호 ⑤건축안전에 관한 기준 등이 있다.

있고 현금자동지급기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이용고객에게 강도 등의 위험을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내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에 특히 매우 이른 아침 시간과 밤늦게 시각에 시의 일부지역에서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엔젤레스와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의 경찰서에도 경찰서 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가지고 있지만 단 몇 개의 지역뿐이다. 이러한 현금자동지급기를 경찰서 내에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시민들이 교통위반스티커를 발부 받는 것과 같은 불쾌한 상황에서만 경찰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과 시민과의 긍정적인 접촉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들은 미국의 각 지역에서 특정한 대상물이나 특정한 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CPTED기법을 적용한 사례들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특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CPTED전략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나중에 이를 전역에 걸쳐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미국의 특정지역에 대한 실험적 CPTED전략의 적용은 완벽한 범죄예방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보다 범죄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예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즉 CPTED전략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인공적인 방법환경설계의 기술로서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기술이며, 인간 삶에 있어 근원적 생존방식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2. 국내 CPTED 사례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아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즉 CPTED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취약지역이나 건축물, 그리고 도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부분에 까지 CPTED기법을 적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이 환경설계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또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그리 활발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김수암, 1993; 강인호 외2인, 1993; 박기태, 2000; 김태진, 2000).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주거공간특성과 범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활발한 건설경기의 흐름에 따라 주거공간과 인접지역의 치안욕구의 수요가 증가하여 보다 근본적인 범죄예방책을 설계하게 되면서 방어공간의 개념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4) 이는 원시시대 인류의 생존방식에서 좋은 예를 들 수 있다. 원시시대의 주거문화는 동굴을 기본으로 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타 부족의 침입과 맹수들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굴내부에 불을 피워 맹수의 접근을 통제하고 입구의 시야확보를 위해 방해물을 제거하였으며, 타 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굴 주변에 인육이나 짐승의 뼈 등을 늘어놓아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고 확보하였다.

의 기법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활성화는 기존의 주택건설 및 공급의 양적측면 중시 경향에서 질적측면 중시로의 인식변화와 그 맥락을 즉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범죄발생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범죄발생 장소에 대한 이용기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를 주거지의 질적 측면과 관련지어 인식하게 되었으며 주거단지의 설계 시 중요한 고려요소로써 작용하게 되었다. 인력에 의한 범죄예방 활동이 한계에 부딪치자 무언가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었다. 특히 장비와 주변의 환경을 결합한 환경친화적인 경비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 되어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CPTED연구들은 건축분야에서의 범죄 및 방어공간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CPTED를 건축분야가 아닌 범죄학 분야에서 접근한 최초의 학위논문은 최응렬 교수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가 있고, 형사정책연구원에서의 관련연구논문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아쉽게도 건축공학이나 환경공학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있다. 실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부녀자 납치와 강도사건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범죄가 환경계획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감안할 때, 신중한 환경계획에 의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CPTED연구인력의 양성과 경찰기관 및 민간경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범죄예방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판교신도시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프로그램이 도입된다. CPTED는 ‘범죄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저질러지기보다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에서 출발해 건물구조와 도로배치, 가로등, 감시장비 등을 범죄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배치하는 것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유래해 80년대부터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건축 관계법령에 반영됐다. 경찰청은 건설교통부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판교신도시에 CPTED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키로 05년 7월 2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 주민 동의 아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며 보행자얼굴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등 높이는 낮아진다. 또 계단 등 건물 공용부분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휴식공간은 주거지 중심부에 설치하는 한편 범죄자의 도주로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는 ‘쿨데삭(Cul De Sac)’설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실무자협의를 열고 미국, 영국 등에서 CPTED를 연구한 석·박사급 현직 경찰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며 6개월달 경기도 부천 3개동을 대상으로 CPTED시범 실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CPTED기법을 개발키로 한다(세계일보 2005, 07월 28일). 이러하듯 우리나라에서도 순찰 등의 전통적인 방법활동을 탈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범죄로 골치 아픈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환경설계를 국내에 뒤늦게 도입한 것이다.

IV.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민간경비활동

1. 지역사회의 적용방향

선진국에서는 수많은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이미 CPTED기법이 도시설계 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법규에도 반영되고 있다. 주동별 특성과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고층형보다 중층형이 범죄발생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주동형식에 있어서는 계단실형, 복도형, 집중형 등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단지 규모에 있어서는 단지규모가 클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우세하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밀도에 있어서는 건폐율이 높을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한다는데는 대부분의 연구가 일치하고 있으나 용적률의 경우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지 내 대규모 시설의 경우 상업지역과 접하거나 주변에 야산이나 녹지가 있는 경우에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의 배치도(주동의 방향, 크기, 높이 등)를 주관적이고 서술적으로 분석하여 물리적 환경의 특징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간구조를 객관화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류중석 2004, 64).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공간구조를 이용하여 범죄취약공간을 해석하려는 연구(최윤경·최재필)가 시도되었으며, 주거단지는 아니지만 고속철도 역사시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실험을 통하여 물리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범죄발생가능성을 추정하는 연구(민병호·최윤경)도 시도되었다.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접근통제·목표물의 견고화 그리고 감시와 같은 아이디어에는 다양한 잠재적인 수단들이 포함될 수 있다. 가로등의 개선, 은폐지의 제거, 자물쇠의 설치, 깨지지 않는 유리창의 사용, 경보기와 폐쇄회로 카메라, 재물표시, 그리고 경비원 고용은 범죄예방을 위한 여러 가능한 수단들 중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감시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서 가로등의 개선은 가장 많이 연구된 개별적 범죄예방전략들 중의 하나였다. 가로등 프로그램의 옹호자들은 가로등의 범죄억제능력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덜 밝은 지역에서 범죄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명의 설치에 주목하고, 그 지역과 새로운 또는 개선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과의 이후의 범죄를 대비시킨다. 지역설계가 다루는 범위를 감안할 때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방안은 건물의 주동계획과 관련된 지침, 외부공간 및 관련시설의 배치를 다루는 단지 계획 차원의 지침, 그리고 동질성을 가진 공간적 범위를 다루는 계획차원이 지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층의 경우 외부인

들로부터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하는 필요성과 적절한 감시의 필요성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도한 식재를 삼갈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는 감시의 시선이 잘 미치는 위치에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단지계획 차원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고려해야하는 사항으로는 우선 외부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단지 내 상가나 문화시설 등과 주거동과의 영역적 구분이 필요하다. 어린이 놀이터나 단지 내의 소공원 역시 버려진 공간의 활용차원에서 단지의 한쪽구석에 배치하지 말고 주동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배치하여 적극적 옥외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심지역의 비싼 지가와 공해, 소음 등을 감안하면 일반주거보다는 오피스텔이나 고급숙박시설 그리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복합타워 등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심의 노후화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슬럼화 현상이나 지구의 쇠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도심재생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2. 경호활동의 적용방향

경호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인력경비는 절도, 화재, 분실, 파괴, 기타 범죄내지 피해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인적, 물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으로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시설주의 관리권 행사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계경비는 인력경비에 대응되는 경비형태로서 기존의 인력에 의존하던 경비방식에서 벗어나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사람 없이도 경비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경비활동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볼 때,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방법과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장치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방법이 있다. 즉, 발생 가능한 침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벽이나 울타리, 출입문, 창문 등과 같은 곳에 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하여 범죄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도록 하여 이를 방해, 또는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기계경비는 순수 무인기계경비, 인력경비와 혼합된 혼합경비로 이루어져 있다.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시설주의 관리권 행사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점포별 안전업무담당자 및 간부는 근무감독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며, 자체교육 또는 경비업체 위탁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경찰서 집체교육시에 적극 참여토록 조치해야한다.

한편, 기계경비의 유형에는 경비업체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경비업체가 중앙관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 그리고 방범업체와 시스템, 장비를 제공하는 것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체가 독자적인 방법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확보하여 경비업체가 독자적인 방법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자의 침입이 우려되는 장소에 각종 전자감지기와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중앙관제소에서 범죄자의 침입여부를 감지하는 것이다. 이 방법시스템의 경우 상황발생시 방법회사 직원이 직접 출동한다.

둘째, 경비업체가 중앙관제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시스템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비업체가 가입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거주 혹은 건물들의 안전상태를 감시하다가 상황발생시 관할 파출소에 즉시 통보하여 경찰이 범행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경우 경비업체 직원은 출동하지 않는다.

셋째, 경비업체가 시스템과 장비를 관할 지구대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건물이나 집에 제공하는 방법시스템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비회사가 경찰서 상황실에 모니터와 프린터로 구성된 신고접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일반 가정이나 건물 혹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감지기, 비상벨, 리모컨 신고기를 지급하며 이 방법시스템의 경우에는 상황발생시 경찰서 상황실에 즉시 신고하여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게 하는 방식이며, 해당 경비업체는 시스템과 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은 경찰이 담당하는 유형이다. 이 세 가지의 방법시스템의 경우처럼 경호활동 분야는 기계경비시설 등을 이용한 경비분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의 선진방법업체들도 서둘러 진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비업 관련 법령 등 각종제도가 정비되면서 경호활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경찰방법활동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곽대경 2000, 123- 126). CPTED가 지역사회에 도입이 되면 인력과 기계적인 방법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써 경호활동 및 경찰의 활성화가 예측됨을 알 수 있다.

3. 관할경찰의 적용방향

민간경호업체와의 협력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방법의식이 결합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범죄취약사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방법의식의 결핍과 더불어 상호협조체제의 미비점과 구체적인 방법환경의 설계방안의 도입문제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혀왔다. 지금까지 경찰의 범죄대책은 주로 사후대처에 치중하고 있었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추세를 보면 CPTED기법의 피해방지전략을 채택하여 범죄의 발생을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인식이 널리 보편화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를 통한 범죄유발환경의 개선과 범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형태로 전개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경찰은 관할구역내의 지역과의 면밀한 협조속에서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의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인데, 순찰을 통한

범죄기회의 억제와 청원경찰의 배치, 그리고 정기적인 방법교육을 통해 범죄예방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체포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범죄발생의 기회를 억제하며, 범죄행위의 표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첫째, 지구대 경찰관과 전, 의경, 경호활동 인력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역사회 연계순찰 및 취약지구의 거점확보.

둘째, 지역사회 순찰시 거동수상자와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셋째, 지역사회 순찰과 병행하여 경호활동인력의 경비원 근무방법 및 자위방법 요령의 지도 방안이 있다. 또한 상황발생시에는 관할서 방법간부가 지령실에서 직접 지휘하여 즉시 출동을 위해 인접 경찰관서와 공조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국가 센터와 국가사법연구소, 그리고 경찰행정연구포럼에서 수행하고 있는 추행연구는 이전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던 교훈에 비추어서 더욱 엄격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분권화와 일선 경찰관의 재량권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주장에 한국경찰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경찰조직 전반이 경직되어 있고 상부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찰관 스스로는 타율적인 근무방식에 익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우며 지역의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를 종합해보면 시민들은 경찰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이 경찰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도 경찰의 업무수행에는 곤란이 뒤따를 것이다.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회복 및 '협조적 제휴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경호경비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민의 경호경비 분야는 국가치안서비스 기관인 경찰기관과 마찬가지로 각종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광범위하게 이바지하여 왔으며, 오늘날 개인을 위한 생명, 재산 그리고 신체에 대한 보호는 일반적으로 경호활동의 임무로 인식하기 이르렀다. 앞으로 나갈 방안부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순찰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관이 배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조사연구에 따르면 경찰관이 시야에

보일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던 사람의 약 70% 정도가 범죄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경찰관 배치가 가지는 시각적 범죄예방 효과는 크다.

둘째, 지역사회의 방범기능 활성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스스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자율방범단을 들 수 있다. 전국에는 각 경찰서나 지구대 단위로 자율방범대가 조직,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경찰관서 산하에 각 면이나 읍, 동별로 주민 중심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경찰기관과 마찬가지로 지휘명령 체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되고 있다. 그리고 사전에 마련된 계획 하에 순찰방법 활동을 벌임으로써 범죄자들의 활동영역을 상당히 좁히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도시지역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 고가의 무선장비를 자율방범조직에 지원하여 활용하게 하면 이들의 업무효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제 경찰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와 이들의 참여를 통한 방범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자체적 방범시스템 개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의 다각적 연구활동이 절실하다고 여겨진다(최영인·염건영 2005, 109).

셋째, 과학적인 CPTED의 적용이 필요하며 앞서 야간에 조명을 밝게 켜놓거나 범죄자의 침입을 감지 또는 경고할 수 있는 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각의 환경에 따른 별도의 방범설계기법을 적용하여 범죄피해를 절대로 입지 않거나, 설사 입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범죄관련 홍보캠페인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들어, 기차나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공 교통수단에 많은 수의 범죄예방 광고스티커나 전단이 부착되고 있다. “범죄신고 112”나 마약범죄 신고안내문, 경찰청의 범죄피해 예방 계도광고 등과 같은 것들이 전부 범죄관련 홍보물에 해당한다. 경호활동과 밀접한 한국경비협회나 한국경비지도사협회의 홈페이지는 다른 여타 사회단체사이트보다 콘텐츠 개발이 저조하여 내용이 미흡한 편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홈페이지의 개편과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동영상 및 자료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초등학생에서부터 주부, 노인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계층의 시민들이 한국경비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종 범죄대응, 경호활동의 중요성, 시민의 대처요령 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학적인 범죄예측 시스템의 설계와 적용이 필요하다. 범죄예측 시스템이란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범죄현상이 진전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예측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이야기한다. 범죄예측은 실질적으로 인문사회과학분야에 해당하며, 과학적 통계분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 있어야만 한다. 범죄도 다른 일반적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유행을 타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인신매매가 극성부렸던 것처럼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가정파괴가 기승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지존파나 막가파와 같은 반사회적인 조직범죄가 전성기를 누리다가 최근 연이은 불황의 여파로 금융범죄와 횡령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범죄예측의 정확성성은 미리 일어나게 될 범죄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대응 체계의 마련을 신속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 범죄예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고안과 각각의 상황에 잘 맞는 범죄예측시스템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여섯째, 경호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범죄통제가 필요하다. 경호활동도 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경호활동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이제 경호 및 경비분야에선 상당히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경호활동사업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는 경호활동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의 수준이 상당히 고급화되었기 때문이다. 급속한 경호활동산업의 성장은 범죄예방의 막중한 책임을 저야 할 경찰의 어깨를 보다 가볍게 해 주었다. 경호활동활성화가 경찰활동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일부 계층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 경호활동 전체를 일일이 관리, 감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뿐더러 소수의 관리 인력만으로 경찰의 수배나 되는 덩치를 가진 경호활동을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의 전분야가 무한경쟁과 민간에 의한 자율운영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호활동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제도의 운영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임준태, 『범죄통제론』, 서울: 좋은세상, 2003.

양문승,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1.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법문사, 2000.

최영인·염건령,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의 역사와 전략』, 서울: 백산출판사, 2005.

2) 논문

곽대경,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회문화학회, 사회와문화 제11집, 2000.

김태진, “환경설계기법을 적용한 방법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경찰고위정책과정 논문집, 2000, 12.

류중석, “범죄예방형 도시설계방안”, 『월간도시문제』 11월호, 2004.

박기태, “특정지역의 환경설계와 관리운영의 변화를 통한 범죄예방: CPTED전략과 사례중심 연구”, 『경찰대학논문집』 제20집, 2000.

박동균,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산업의 대응과제-위기관리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 연구, 2005.

박현호, “CCTV를 통한 도시범죄의 통제: 방법 CCTV와 도시의 안전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39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안황권·김상돈, “지역사회의 연결망을 통한 범죄피해예방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18권, 한국교정학회, 2003.

이윤근, “각국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보, 제1호, 1998.

임창호,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한국공안 행정학회, 2004.

_____, “자율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조병인,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1-02,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1.

채권석,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있어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3) 신문

세계일보, 2005. 07. 28, “판교신도시 범죄예방설계 첫 도입”

중앙일보, 2005. 01. 01- 2005. 10. 10 범죄사건사례

4) 인터넷자료(URL)

<http://www.nyc.gov/html/nypd/pdf/chfdept/cscity.pdf>

http://www.nyc.gov/html/nypd/pdf/pap/cs_success.pdf

<http://www.police.go.kr>

2. 국외문헌

Bayley, D. H., *Police for the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Gilling, D., "Community Safety; A Critique," *British Criminology Conferenced: Selected Proceedings*, Vol. 2, Loughborough; British Society of Criminologh, 1999.

Robert L., O'Block Joseph F. Donnermeyer, Stephen E. Doeren, *Security and Crime*.

ABSTRACT

Crime-Prevention in the Community and the Security Activity

Jang, Ye-Jin

The occurrence of complicating, multilateral social condition demands the strategy for facing many social state and consolidating public security against criminal loss. The lacking ability of local police for preventing crime can't satisfy the demand of security and can't get rid of fear of crime. At last, it brings a distrust of public confidence and became a factor of serious social crisis. We have problems - not only making an alternative plan for preventing crime, but also introducing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by environmental design, to expect crime prevention and to select systemic crime prevention system and the most suitable model.

And we have a goal -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guard activity for local crime, analyse public safety activity in community & focusing guard activity as a strategy for them, apply CPTED i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company as a local crime prevention & setting effective model, and, make it as an index for preventing & dealing with intellectual, brutal crime.

The rapid growth in the guarding-activity field lighten the burden of police for crime-prevention. But the misjudgement of some people blocks it to be settled institutionally. It needs to reconsider what is the effective crime-prevention method, at this point of time when the all parts of a nation changing into unlimited competitive, private self-control system.

Key Words : CPTED, Environment Design, Crime Prevention, Guard, Community